

국악방송 제3기 시청자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자문회의 결과

작성일자: '19.11.22.(금) 심의자료실

□ 개요

- 일시 : '19.11.20.(수) 10:30
- 장소 : 국악방송 본사 10층 대회의실
- 출석 위원 : 주철환(위원장), 김희선(부위원장) 등 9명
- 참석 국악방송 임직원
 - 사장, 방송본부장, 심의자료실장,
방송제작부장, 문화영상콘텐츠부장, 감사부장,
대전국악방송국장, 광주국악방송 차장(영상회의 연결),
영상개국추진단 차장, 방송망인프라팀 차장, 심의자료실 차장 등
- 주요 내용
 -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 국악방송 소개 영상 및 TV채널 개국홍보 영상
 - 위촉장 전달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 신임 위원장 인사
 - 주요안건 보고 및 방송편성에 관한 제언 및 자유토론 진행
 - 오찬 간담회

□ 결과

- 주요 안건 보고
 - 국악방송 TV개국 추진경과 (영상개국추진단장)
 - 라디오 편성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방송제작부장, 광주 및 대전국장)
 - TV편성방향 및 주요프로그램 소개 (영상개국추진단 차장)
- 방송편성 및 TV개국 등과 관련한 제언 및 자유토론 진행 (시청자위원)

□ 제3기 시청자위원회 명단

분야	직능	성명	주요약력	성별	비고
방송정책	방송, 미디어정책	금희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장	여	참석
방송콘텐츠	국악이론	김희선 (부위원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여	참석
	국악실기	천재현	정가악회 대표	남	참석
	문화재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 연구소장	남	참석
	대중문화	주철환 (위원장)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남	참석
콘텐츠 유통	마케팅 전략	이재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기획팀장	남	참석
교육	전통예술교육	곽은아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여	(불참)
법조	변호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저작권 전문)	남	참석
예술인	예술인 복지	김지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여	참석
시민단체	시민단체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남	참석

* '18년 국악FM방송 재허가시 허가기관(방송통신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 방송분야 전문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 확보하여 구성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등 내용

- 주철환 위원장 : 속전속결보다는 차근차근 차례차례 가는 것이 중요함. 보이는 라디오를 기본으로 하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채널 251번을 잘 홍보해야 함. 채널 번호를 통한 언어유희로 채널을 기억하기 쉽게 하는 방법, 홍보 노래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국악방송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국악계 스타의 양성이 필요함. 팽수와 같은 캐릭터를 내세울 필요도 있음. 히트곡을 만들어야 함. 전통의 보존과 계승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내야 하겠음. 국악 오디션, 국악 학습 프로그램 등. 낡은 국악의 탈피를 위해서는 조기교육과 연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와 협연을 맺거나 전국 어린이 명창 대회 같은 것을 추진해 볼 수 있음. 한복을 입는 국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음. 위원장으로서 홍보와 관련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김현 위원 :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에서 TV 채널을 추진해 왔는데, 국악방송에서 TV방송을 개국하게 된 것은 상당히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임. 음성으로 전달하던 것을 영상으로 전달하게 되는 부분에서 콘텐츠가 변화하게 될 것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므로 차세대 미디어에의 적응을 위하여 과감한 시도를 해도 좋겠음. 전국의 서원이 600개가 넘는데, 지역문화의 산실이고 복합적인 문화가 연계되어 있기에 소재로 추천함. 이와 같은 것을 드러낸 매체가 잘 없었음. 이것을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해 보면 좋겠음. 국악을 소재로 젊은이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김지영 위원 : 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한데, 예비예술가, 청년예술가 등은 공연을 할 곳이 없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런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음. 현재 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11개 분야의 예술인들 가운데 국악인의 비중은 4% 정도로 상당히 적으므로 더욱 관심이 필요함. 지친 현대인들에게 치유가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음. 명상과 같은 프로그램의 편성을 환영함. 대중들,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함. 향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기초적인 권익이 강조되고 보장되어야 하므로 예술인의 권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음.
- 박선영 위원 : 고정된 국악의 이미지 틀을 깨는 시도가 있으면 좋겠음. 국악을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들 간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도 제안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관련하여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변화를

끌어내야 함. 동아리 등과 같은 생활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강사들과 연계해야 함.

- 김희조 위원 : 최근 문화융합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시청자들이 참여하여 편성을 채우고 방송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필요함. VJ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요즘은 일반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대세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이재일 위원 : 옛날의 방송이 일방적이고 계도적이었던 것에 비해 요즘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시청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짐. 공중파와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킬러 콘텐츠를 양성하는 것과 홍보마케팅에 힘써야 하겠음. 방송 외에 유튜브를 활용하여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하거나 기프트콘 등을 걸고 원초적 마케팅을 해서 알릴 수 있음. 콘텐츠의 연계도 중요함. 네이버의 공연예술 판, 블로그 노출 등으로 홍보할 수 있겠음.
- 윤용근 위원 : 소리를 영상으로 만들 때 활용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계약서 등을 확실히 해 놓으면 콘텐츠의 수출도 가능할 것임. 저작권 부분을 잘 고려하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악기를 다루는 콘텐츠도 잘 다뤄지면 더욱 좋을 것 같음.
- 천재현 위원 : 국악방송이 생겨나는 것이 공연예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되고 고민되는 부분임. 국악 외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서 국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 즉 가교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음. 국악 대표 프로그램들의 제작의 아쉬움을 국악방송에서 보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함. 국악 공연 현장과의 상생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아가겠음.
- 김희선 부위원장 : 국악의 미래와 관련하여 국악원도 국악방송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 협업하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국악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악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경연대회 등을 함께 하는 방법 등이 있겠음.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borderless하게 세계와 문화를 넘어서 퍼져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국악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자유자재로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환경을 활용하고 국악이 가진 진지함을 넘어서 fun한 것을 녹여내는 것도 좋겠음.

□ 사진자료



위원회 회의 진행



위촉장 수여



위원 단체 사진